



축산업계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에 이창범 단장 임명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0일 축산정책단장에 이창범 전 식량정책단장을 임명했다. 이창범 단장은 서울대 행정학을 전공하고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농업경제학을 거친 행정시출신으로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범 단장은 “국내외 생산기반 확대와 정책지원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한편 농축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이창범 단장

한국사료협회

새 회장에 조남조씨 추대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월 24일 2009 정기총회에서 조남조 수목장실천회 이사장(전, 산림청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이어 전무로는 김남훈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장을 추대했다.



▲ 조남조 회장

조남호 신임 회장은 “회원사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히 3F(Fair, Fateful, Fond)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계란유통협회

제2대 회장에 강종성씨 선출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 2월 28일 용산 소재 철도웨딩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강종성 계란유통위원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 김재수 농진청장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강종성 후보가 박남식 후보를 145대 90으로 제치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한편, 투표에 패배한 박남식 후보는 감사에, 최홍근 회장은 정관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강종성 회장은 강이하고 성실한 회원들의 종이 되어 협회지부 활성화, 회원의 화합의장 마련, 투명한 협회운영, 행동하는 회장 등 4대 목표를 세워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본문 76페이지 참고).

농협중앙회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 개최

“농협안심계란” 사업 설명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오정길)가 지난 19일 농협중앙회 제1소회의실에서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및 안병철 대전충남양계농협 등 양계관련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김삼수 양계특수가축팀장으로부터 양계현황보고 및 농협 안심계란 대표브랜드 및 대표조직 육성방안 등에 대한 추진현황이 발표되었다. 김 팀장은 “농협안심계란” 대표조직 육성을 통한 시장안정과 수출산업화



로 채란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안심계란”은 정부, 농협, 조합, 유통상인, 대형유통업,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협중앙회가 위생,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국내 유통망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계란유통시장의 30%를 점유(연간 30억개, 매출액 3,60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계관련 조합장들은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양계조합장 협의회의 신규회원으로 포천축협을 받아들여 총 12개 조합이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축산물 영업자의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여 축산식품의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4차례에 걸쳐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석희망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며 4.2(목)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본원을 시작으로 제주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주요내용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해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방법
- 최근 개정 내용 및 개정 추진 내용
- 도계장,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 주요 질의회신 사례
-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축산물 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 일정

구분	일자	시간	장소
1차 본원	4.2(목)	14:00~16:40	대강당
2차 제주	4.9(목)	10:00~12:00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3차 호남	4.15(수)	14:00~16:30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
4차 영남	4.23(목)	14:00~16:30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2월 27일 2009년

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과 관리수의사업무 수입에 따른 정관 및 직제규정 등을 의결하고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2008년 주요사업실적으로는 초동방역팀 25개팀을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의심환축 발생농장에 투입하여 질병확산을 방지하였으며, 가축사육농가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시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의 효과적인 방역대 설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역시행장의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업무를 3월 12일부터 방역본부가 수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부장 추천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단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 대한수의학회 박용호 이사장으로 구성하였다.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검역시행장의 민간 관리수의사의 소속을 전환하여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리수의사는 60명으로 경기 용인·광주, 부산 3

개 검역사무소에 각각 배치되어 현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의 변경된 업무수행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 용인문예회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업무수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관리수의사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시행장에서의 관리수의사 임무는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이동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 △종업원 및 관계인 방역교육과 출입자 통제 등이다.

관리수의사 임용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9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강화를 위하여 민간 검역시행장에서 방역본부로 소속을 전환한 관리수의사 6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정영채 본부장 직무대행은 식사를 통해 “세계는 일일 생활권시대로 편리해 졌지만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관리수의사들이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용된 관리수의사 60명은 선서를 통해 방역본부 비전 달성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빠르고 든든하며 차별화된 검역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